

역사 속 인물들

1. 조지 케일리



Sir George Cayley 조지 케일리
(1773.12.27-1857.12.15)

영국 요크셔 스카버리에서 태어난 조지 케일리는 항공사상 최초로 생명력 없이 움직이지 않는 날개를 가진 비행기계의 과학적인 기초 원리를 확립하는데 절대적으로 공헌을 한 사람이다. 비행기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로 날개를 움직여 비행하려 했던 다빈치의 연구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몽골피에 형제의 기구비행에 자극을 받아 고정된 날개를 일정한 속도로 전진시키면 날개에 양력이 발생하여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계를 뜨게 할 수 있다는 고정익 비행기의 기초적인 원리를 밝혀냈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훗날 1세기 후에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동력비행에 성공하는 터전을 마련했고 또한, 비행기의 아버지라 불리게 하였다. 그는 글라이더를 최초로 비행시킨 사람이며 가동익이나 상반각 등의 효과에 대한 이론을 수립하였고, 저항의 감소를 위해 비행기 각부의 모양을 유선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행선의 설계를 발표하고, 항공기 추진용 가스기관과 열 공기기관의 실험을 하기도 하였는데 1799년 접시에 그린 고정익 비행기계, 1843년 두 꼬리날개를 가진 증기 동력 비행기 "Aerial Carriage", 1849년 3겹 날개 글라이더, 1953년 조종 가능한 새로운 글라이더 등이 바로 그것이다.

2. 펠디난트 폰 체펠린



Ferdinand von Zeppelin
펠디난트 폰 체펠린
(1838.4.8-1917.5.8)

오늘날 비행선의 모태가 된 체펠린호를 발명한 체펠린은 기체 비행선의 근원을 성립하였다. 그의 최후 작인 힌덴부르크호는 선체길이 245m 직경 41m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며 뒤쪽의 프로펠러에 의해 추진력을 제공받는 형식이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을 폭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고 대서양 횡단과 세계 일주 비행에도 성공하였으나 1937년 뉴욕착륙 직전의 공중 폭발 사건으로 인해 비행선의 개발이 중지되었다.

3. 오토 릴리엔탈



Otto Lilienthal 오토 릴리엔탈
(1848.5.23-1896.8.9)

근대 비행기 탄생의 선구자로서 글라이더를 발명하여 비행기 발달에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베를린 직업학교를 졸업 후 새의 모습을 기초로 하여 18가지의 글라이더를 발명하였으며 2000회 이상의 비행실험을 하였다. 1896년 시험비행을 하던 도중 강풍을 만나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사망을 하였으며 그의 사망은 라이트 형제에게 동력비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가 남긴 업적은 그에 의해 활공비행을 이루었으며 비행기 탄생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라이트 형제



Wilbur and Orville Wright
라이트형제
(1867.4.16-1912.5.30
/ 1871.8.19-1948.1.30)

1892년 자전거 회사를 시초로 오토 릴리엔탈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비행기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글라이더 비행에 성공한다. 1903년 마침내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였으며 점점 발전시켜 나아갔다. 1909년 라이트 비행기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각각 1912년 1948년 세상을 떠났다.

5. 루드위그 프란틀



Ludwig Prandtl
루드위그 프란틀
(1875-1953)

현대의 항공역학을 이룬 루드위그 프란틀은 항공 역학과 유체역학에 누구 못지 않은 기여를 했지만 노벨상을 수상하진 못했다. 그의 업적으로는 얇은 에어포일 이론, 유한 날개이론, 초음속 충격파와 팽창파 이론, 그리고 경계층 개념의 내용 등 무수히 많다. 1930년대까지 유명한 유체역학의 원로로 인식되었던 프란틀은 구조역학과 기상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의 유체역학 이론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6. 글렌 커티스



Glenn H. Curtiss
글렌 커티스
(1878.5.21~1930.7.23)

뉴욕주의 해먼즈 포드에서 출생하였으며 1904년 연식 비행선 캘리포니아 애로우용 발동기의 제작 설계를 담당했다.

이 비행기는 세인트루이스 박람회에 출장하여 끝까지 성공을 거둔 유일한 비행선이며 미 육군에서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그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1908년 미국 최초의 공공비행에 성공하였으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트로피를 획득하였다. 1909년 프랑스의 랭스에서 개최된 세계비행대회에 입상, 1910년 올버니에서 뉴욕까지 2시간 51분의 단축 기록을 수립하였다. 1911년 미 해군은 커티스의 수상기를 첫 수상기로 채택하였다. 1917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에 군용기를 공급하였다. 그의 회사는 라이트사와 특허관계로 문제가 많았으나 후에 라이트사와 M&A를 이루었다.

7. 데오헬 폰 카르만



Theodore von Karman
데오헬 폰 카르만
(1881.5.11~1963.5.6)

유체역학 연구의 선구자로서 아헨 공과대학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을 설립하였다. 주요 업적으로 카르만의 소용돌이의 안정성(1911), 마찰저항의 이론(1930), 역학적 상사에 따른 난류 이론(1938), 천음 속상사법칙(1947) 등의 연구가 있다.

8. 이고르 아이반 시코르스키

러시아 태생의 미국 항공 기술 발명가였다. 세계 최초의 4발 대형기를 설계 제작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39년부터는 헬리콥터 설계를 시작하여 1941년에 비로소 오늘날의 헬리콥터의 기본 형식을 완성하였다.



Igor I. Sikorsky
이고르 아이반 시코르스키
(1889.5.25~1972.10.26)

9. 안토니 포커



Anthony Fokker
안토니 포커
(1890.4.6~1939.12.23)

인도네시아의 부유한 커피 재배자의 아들로 태어나 20세에 이미 자가용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다. 1917년 국제 비행기 면허를 취득하고 베를린 근처에서 회사를 차려 군용항공기 설계 경쟁에 입찰하였다. 그는 곧 독일 정부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3년간 비행사 훈련도 도맡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대전 이전에 약 40여종의 항공기를 제작하였으며 프로펠러 전면 직사기 총발사 장치를 고안하여 세계 최초의 전투기 '포커 E1형기'를 제작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암스테르담으로 옮겨 '네덜란드 항공기 제작소'를 설립, 수송기를 제작하였다. 이 수송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 이를 사용하는 업체가 45개 이상 되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애들랜틱 항공기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곧 명칭을 아메리칸 포커로 개정하였

다. 이후 민간 상업용 항공기의 설계와 개발에 만년을 바쳤다.

10. 만드레드 폰 리흐토벤



Baron Manfred von Richthofen
만드레드 폰 리흐토벤
(1892.5.2~1918.4.21)

1차 대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조종사로 칭송받는 리흐토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설로 남았다.

그는 러시아의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귀족사회의 전통에 따라 입대하였으며 제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기병대부터 시작을 하였다. 정찰부대의 관측장교를 하던 리흐토벤은 항공분야에 무한한 매력을 느꼈고 뮐케를 스승으로 삼아 열심히 조종술을 익혔다. 그는 주당 1기를 격추하는 격추 레이스를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스승의 업적을 이어받아 전설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대한 지휘자가 되어 우수한 조종사를 뽑아 야스타를 조직하였다. 그는 자신의 부대의 비행기들을 모두 붉은색으로 도색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기체는 붉은색으로 칠했다. 연합군 측에선 '나는 서커스단'이라 불렀는데 전쟁

기간을 통틀어 가장 무서운 전투 부대로 기억되게 하였다. 이때까지 그는 붉은 남작, 붉은 기사, 붉은 악마 등으로 불렸으며 전인미답의 80기 격추로 인해 불사조의 전설을 세웠다. 이는 독일군의 우상이었으며 그의 선전 기체에 모든 독일군의 사기를 폭발시켰다. 그러던 중 영국 비행대대에 의해 격추당했으며 그의 기록은 전쟁이 모두 끝날 때까지 깨지지 않았다. 이후 세월이 흘러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붉은 남작을 우상화시켰으며 현재 까지도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투혼을 가진 불사조 에이스로 조종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1. 윌리 에밀 메셔슈미트



Will E. Messerschmitt
윌리 에밀 메셔슈미트
(1898.7.26-1978.9.15)

그는 14살에 첫 글라이더를 만들었고 3년 뒤 날수 있는 구조를 디자인하였다. 비행기 설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메셔슈미트 비행기 제작소를 설립하여 독일 항공 우주산업의 리더가 되었으며 38년 바이에른 항공기 제작사와 합병, 2차 대전 동안 독일 공군을 위해 약 35000대의 ME BF-109를 생산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약 2년간 미군에게 억류당해 재봉틀을 생산하였으나 58년 다시 항공기 제작을 시작하여 70년대에는 약 2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인공위성, 헬리콥터, 미사일, 항공기 제작사가 되었다.

12. 찰스 린드버그



Charles A. Lindbergh
찰스 린드버그
(1902.2.4-1974.8.26)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하여 뉴욕으로부터 파리까지 단독비행을 한 인물이다. 그의 행동은 lone eagle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여 미국인들이 개척정신의 상징으로 인식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2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 그는 미국의 전쟁 개입을 극구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진주만 사건으로 생각이 바뀐 린드버그는 40이 다 된 나이에 자원입대를 하였고 미 공군의 비행실력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으로 승격 받았고 그의 저서 'The Spirit of St. Louis'는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13. 클라렌스 존슨



Clarence L. Johnson
클라렌스 존슨
(1910.11.27~1990.12.21)

이미 젊었을 때부터 항공기 산업분야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그는 켈리라는 애칭으로 유명하다. 그가 설계한 시속 640km의 트윈테일 P-38 라이트닝은 당시의 연합군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하였다. 그는 미 국방성으로부터 음속 전투기 제작을 의뢰 받고 143일 만에 P-80 슈팅스타를 제작하였으며 후에 록히드 마틴사를 세웠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스타일리시하며 고성능을 자랑하는 켈리의 항공기들은 모두 스캅크 워크스의 힘으로 제작되었으며 스캅크 워크스는 켈리가 속한 팀의 이름이었다. 이후 고공 첩보기 SR-71 블랙버드를 만들었으며 이 비행기의 최고속도는 수년간 깨지지 않았다.

14. 찰스 에드워드 예거



Charles E. Yeager
찰스 에드워드 예거
(1923.2.13~)

세계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미 공군 파일럿 예거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13기의 적기를 격추시켰고 전후에 시험 비행사로 활약하였다. 1947년 그는 주위의 마하의 이론에 대항하여 당당히 음속 비행기에 도전하였고 그의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마하 1.35의 속도로 비행을 하였으나 기내 자체 결함으로 비행기는 폭탄처럼 터지고 다행히 탈출에 성공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식으로 마하에 도전한 예거는 오늘날의 항공 산업을 이끈 위대한 인물이다.

15. 닐 암스트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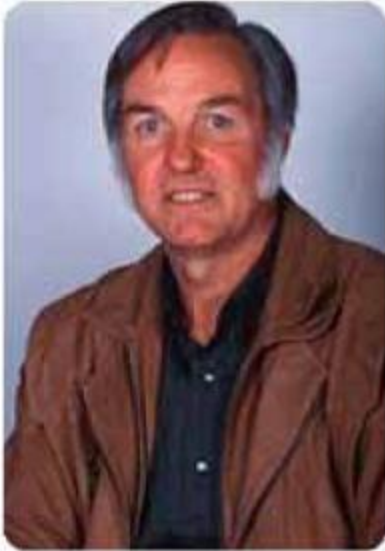


Neil A. Armstrong
닐 암스트롱
(1930.8.5~)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항공학을 전공한 후 해군비행학교로 진학하여 6·25전쟁 중 해군전투조종사로 78회 출격하였다. 훗날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들어간 그는 1962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제2기 우주비행사로 선발된다. 1966년 3월에는 제미니 8호의 선장인 D.R.스콧과 함께 첫 우주비행을 하여 아제나 위성과 최초의 도킹에 성공하였다. 어려서부터 비행기를 좋아한 닐 암스트롱은 16세 때 이미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후에 퍼듀 대학교에서 항공학을 전공하여 비행기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그는 졸업 후 해군비행학교에 진학한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제트기 조종사로 78회 출격하였고, 1962년에는 항공 및 우주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미 항공우주국(NASA)에 제2기 우주 비행사로 선발되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주진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우주비행사가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인류가 달에 도착한 때는 미국시간으로 1969년 7월 20일 오후 1시 17분 40초경, 대원 두 명과 함께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을 향해 떠난 암스트롱 일행은 달착륙선 이글호로 가장자리인 '고요의 바다'에 착륙했다.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이후 1986년 1월 31일에 7명의 승무원을 태운 챌린저호가 공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폴로11호에 오른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버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도 또한 목숨을 건 비행을 위해 우주로 향했다. 만약 달 궤도에 들어간 아폴로 11호가 궤도를 몇 바퀴 돌고 나서 달착륙선인 이글호가 착륙지점을 잘못 선택했다면 울퉁불퉁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사고가 생겼을지 모른다. 달에 첫발을 내디딘 암스트롱도 첫발을 내딛다가 그대로 먼지 속으로 빠져버리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한다. 그는 달에 도착한 순간, "이것은 나 한 사람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라고 첫 소감을 말했다. 또한 '1969년 7월 지구라는 행성에서 온 인간들이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여기 왔다.'라는 깃발과 23개 나라 대통령들의 연설을 담은 실리콘 디스크를 달에 남기고 왔다. 수 세기 동안 동경과 감상의 상징이며 우수한 인간의 희망과 꿈에 대한 커다란 중심이었던 달은 암스트롱 일행을 태운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성공함으로써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크다. 더불어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한 지 30년 뒤 달에 얼음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달의 효용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다.

16. 엘버트 버트루탄



Elbert L. "Burt" Rutan
엘버트 버트루탄
(1943.7.17~)

그는 스포츠 항공기의 최고 권위자로서 학생 때부터 캐나다 형식의 특이한 모습에 영감을 받아 항공기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면서 variviggen을 제작하였고 그로 인해 그는 캐나다 형식의 스포츠 항공기 제작에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 그 후에 스포츠 항공기와 최초 세계일주 무착륙 비행기인 보이저를 개발하였다.